광주은행, 고객밀착·현장중심 경영…코로나에도 빛났다

상반기 당기순익 858억 달성…전년비 0.8% 증가
"하반기에도 내실경영 강화…연간 목표달성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도 광주은행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858억원을 달성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858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하며 1년 전 보다 0.8% 증가한 실적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19억원으로, 올해 코로나19 관련 일회성 충당금 추가적립액 89억원(세후 손익효과 68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실적은 0.8% 증가한 셈이다.

광주은행의 상반기 순이자마진(NIM)은 2.28%로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0.47%, 연체비율 0.38% 등 은행권 최고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 증가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충당금 규모를 늘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안정적인 경영실적의 배경에는 저원가성 핵심예금과 우량고객의 지속적인 증가, 내실 위주의 질적성장 추진,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객밀착경영과 현장중심경영을 토대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광주은행은 지난 15일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반기 전략 및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영방침과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추기 위해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으로 ▲탄탄한 내실경영 강화 ▲지역밀착 경영 확대 ▲디지털 역량 제고를 내세웠다.

송종욱 행장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수익성·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탄탄한 내실경영 강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포용금융 경영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역밀착 영업 강화 ▲새로운 디지털비즈니스 발굴과 소매신용여신 혁신, 마이데이터 사업 적극 대응을 통해 비대면(언택트) 시대를 대응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자체 캐릭터 'KJ베어스'를 공개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계획을 밝혔다.

광주은행 캐릭터 웅이·달이·단지는 각종 금융상품과 인터넷·스마트·모바일웹뱅킹 등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 활용되며 고객과 소통의 통로를 넓혀가고 있다.

또 상반기에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을 3년 연속 받으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광주은행의 올 상반기 활동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광주상생카드 등 지역화폐 활성화',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회공헌 강화'로 요약된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지난달 말까지 1만4666건, 7009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벌였다.

자체적으로 편성한 특별자금 1000억원 외에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각 1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5억원 등을 출연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광주신보 본점·지점에 광주은행 직원 40여 명을 파견, 주야간으로 보증서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부터는 지자체 등에 성금을 전달하고 임직원이 직접 만든 긴급 구호물품을 코로나19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전했다. 광주은행이 기탁한 성금은 광주시 4억원, 전남도 3억원, 목포·순천·여수·나주에 각 1000만원 등이다.

송종욱 은행장은 "광주은행 고객과 지역민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속적인 고객중심·지역밀착경영을 토대로 지역과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확대
한전, 2022년까지 전국 201기

광주와 나주에서 전기버스 충전서비스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충전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한전은 29일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주시 전기버스 충전사업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201기에 달하는 전기버스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6년간 128킬로와트시(kWh) 전기버스 15대를 도입하고, 한전은 100kW 급속충전기 13기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2022년까지 201기, 2025년까지 총 534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전은 현재 나주시에 200kW 충전소 3기를 비롯해 광주시, 세종시에도 각각 4기씩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버스·화물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기버스는 내후년까지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 중이다.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보급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에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나아가 전기 택시와 전기화물차 분야로 충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 여름 전력 공급 문제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나주 본사에서 전력 예비력이 최대 250만kW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상황을 가정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시행했다. 한전은 지난해와 같은 폭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8730만~9080만kW 안팎으로 내다보며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제공〉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석달만에 하락…전국은 상승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또다시 하락했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7월 광주·전남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0.4로 지난달보다 2.9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이고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달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74.5로 바닥을 찍었다가 5월 80.1, 6월 83.3으로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달 대비 2.4포인트 오른 84.2를 기록해 광주·전남과 대조됐다.

주요 조사항목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CSI(소비자동향지수)는 전국적으로 1포인트 올랐지만 광주·전남은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소비지출전망CSI도 평균 2포인트 오르는 동안 지역은 4포인트 떨어졌다. 향후경기전망CSI와 취업기회전망CSI도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20일 광주·전남 도시 가구 중 600가구(응답 556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63.16 (+6.17)	↓ 금리(국고채 3년)	0.811 (-0.002)
↑ 코스닥	808.59 (+0.74)	↓ 환율(USD)	1193.10 (-3.80)

광주경총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올해 말까지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특화 IT 활용 등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한 IT 관련 직무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해 차등해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문의는 광주경총 일자리TF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근무나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새얼굴

"지자체·경제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김윤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지역경제 현안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지자체 및 경제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윤기(55) 신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30일 취임을 앞두고 "광주·전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기 신임 본부장은 광주상업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대전충남본부 부본부장, 재산관리실 실장 등을 지냈다. /백희준 기자 bhj@